

임마누엘

노경애 블란디나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1. 구세주의 탄생을 위한 마리아의 응답을 배운다.
2.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함을 안다.

준비물: 성서, 펜, 색상지, 풀, 가위, 그림자극(막, 조명, 마이크, 음악)

신작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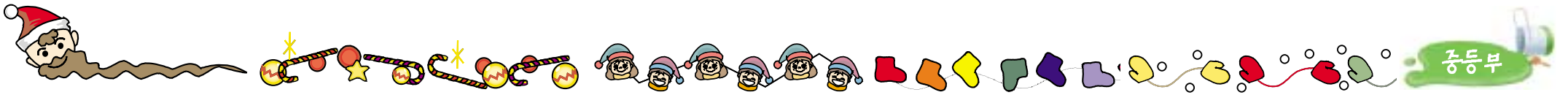
액션송 2집 '임마누엘' (서울대교구 본당 중고등학생 사목부 발행)

바라보기(10분)

- 1) 내 곁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적어 봅시다.
- 2) 그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2-3명이 서로 나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에는 우리가 살아온 일 년 간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 곁에서 힘이 돼 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고 슬프게 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행복했던 시간들 등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아쉬움을 정리하면서 다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 중 누구,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들은 나를 보

교
리
교
안



살펴 주고 내게 사랑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는 언제나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질문은 교리의 시작을 위해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늘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아보기(30분)

- 1)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적어 봅시다.
- 2)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세의 압박에 시달리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고 구원해 주시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7, 14)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마태 1, 23 참조).

하느님의 말씀은 힘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세주를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라는 마리아의 적극적인 응답이 있어야 했습니다. 루카 복음을 따라 가면서 하느님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루카 1, 26-56).

작업 그림자극 ‘마리아의 노래’

무대 무대를 가릴 커다란 막(현책 광목)이 필요합니다. 조명은 무대 뒤에서 비추고 학

생들이 배역을 정해 막과 조명 사이에서 연기를 합니다. 해설은 따로 정합니다.
등장인물 해설자, 천사, 마리아, 엘리사벳

해설 하느님께서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나.

마리아 (당황하며)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내게 그런 인사를 하시죠?

천사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마리아 그러면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시군요.

천사 나는 이제 너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 너는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 (놀라며) 그렇지만,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 성령이 너에게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이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마리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해설 며칠 뒤 마리아는 길을 떠나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그때 엘리사벳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 정도 되었다.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마리아 안녕하세요. 엘리사벳!

엘리사벳 (성령을 가득히 받은 큰 소리로)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해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노래를 불렀다.

마리아 마니피캣(시간이 되면 성서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를 읽습니다.)

(그림자극을 할 수 없으면 성서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 속에서 세상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성탄은 그리스도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축제이며 기쁨입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오 복음은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분이십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작업2 성탄 카드 만들기

- ① 일 년 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친구나 소외시켰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② 루카 2, 1-11의 말씀을 읽습니다.
- ③ 예쁜 성탄 카드를 만듭니다.
- ④ 카드를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서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회개하는 내적인 준비가 필

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하였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

작업1과 작업2 중 본당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5분)

- 1) 대림시기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적어 봅시다. (예: 판공성사 하기, 부모님 도와드리기, 싸운 친구와 화해하기 등.)
- 2) 대림시기 동안 실천한 것을 예수님의 영적 생일 선물로 봉헌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났고 어머니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아 자라났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인간과 나누고 싶어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마침 기도

‘주님의 날’ (때제성가 72번) - 악보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관련 교리서

사랑의 편지(부산교구 중1 15과) / 학생교리(대전교구 상권 14과)